



<1월호>

월간서신원

제 13호(vol.2-1)

발행인: 권호덕총장
편집인: 장석조교수
발행소: 서울성경신학
대학원대학교
발행일: 2016 01 15

<총장 칼럼>



신앙은 희망의 빛을 일으킨다

권호덕 총장

언젠가부터 세계 어딜 가나 새해가 되어도 별로 희망적인 서광이 비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은 올해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세계 정치와 경제는 력비공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튠다. 북한의 핵 무기 실험장난, IS의 만행, 법치주의를 비웃기라도 하는 폭력시위, 집단이기주로 인한 합의 파기, 출령이는 세계 경제, 당리당략에 빠져 제 기능을 전혀 못하는 식물국회, 백만 명에 육박하는 젊은 세대들의 실업 상태 등등.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회가 절망이라는 몹쓸 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정황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나아가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상당히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상징하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다. 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나아가 한국교회의 장래는 매우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작고한 청소년 운동가 남민우 목사가 청소년들에게 “위대한 비전”(Great Vision)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던 일들이 새삼 그리워진다. 1980년대에 이런 비전으로 배우고 자기 발전한 젊은 세대들이 지금 나라 곳곳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매우 혁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역사는 우리가 시간적인 차원에서 소망이나 비전을 상실할 때 신비주의에 빠져서 현실과 초자연 세계를 오가며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 당시 원대한 비전을 발견한 그 세대들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성경은 희망 내지 소망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성경 전체는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하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에게 앞으로 구원자가 등장하여 원수들을 멸하고 세상을 회복한다는 희망의 복음을 주셨다. 이 희망의 흐름이 면면히 흐르다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게 되고 다시 아브라함은 그 후손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분이 태어난다는 비전을 받았다. 신앙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편안하게 살지 못했음을 성경은 보고한다. 그러나 이런 혐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았음이 성경에 나타난다. 그들 역시 잔인한 정권이나 강도들의 위협을 받았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썼으며 속임을 당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며 자기 일에 충실했던 것이다. 족장들의 이런 삶은 이미 우리가 혼란한 현대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미래의 목표 지점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좋은 모범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지점을 분명하게 일려주었다. 그것은 바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였다. 그들이 그것을 행해 가는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다. 더러는 인근 주위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았고 더러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고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했으며 더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여 거역하다가 불심판을 받기도 했다. 60만 장정이 출발하여 60만 장정이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나 새로 태어난 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적인 비전이 완성된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비전 성취방법을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서 끄집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셨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이 비전이 이루지기 위해 지도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하는 모세는 끈질기게 그 비전을 바라보고 정공법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개인과 교회의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 첫째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게 되어있다. 하나님은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인도자이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목표지점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하신다. 셋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장애물들이 가로막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지점을 행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의 목표지점을 보여주고 그것을 향해 매진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신앙)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후세들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바로 가르치는 일이 실제 그들의 인생을 좌우함을 알고 잘 가르쳐야 될 것이다. 그러면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한해 2016년이 시작되었다

지금도 은하계가 돌아가고 그 안에 있는 태양계가 돌아가며 하늘에 태양과 달이,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별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또는 보존하심으로 설명한다.



은하계



새하늘과 새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교계소식>



김영한 박사
(샬롬나비상임대표, 기독교학술원
장,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초창기 시절 우리는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려던 일제의 모든 시도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았던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우리 교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3.1절 운동을 주도하는 등 민족의 앞날을 이끌 수 있는 예언자의 역할을 해 내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 샬롬나비는 이러한 과거 우리 선조들의 신앙과 희생정신에서 빚어진 모든 순교적 언행들을 기억하면서 다음의 과제를 한국교회에 기대하고자 한다.

1.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양 무리를 지키는 선한 목자의 모범을 보여주자.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선한 목자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많은 언론인들에게 목회자 인상을 물을 때 그들은 많은 한국의 목사들이 기업의 CEO같은 인상을 갖게 한다고 말한다. 물론 경영적 측면에서 더 능력 있고 조직을 점검하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미래지향적인 지도자의 태도는 목사가 가져야 할 것 가운데 꼭 필요하다. 그러나 더 우선적으로 되찾아야 할 것은 선한 목자로서의 지도자상이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을 양을 치는 목자로 상정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무리 유능한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양 무리를 지켜야 하는 선한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를 갖는 영성의 깊이를 가져야 하며 이 영성에 의거하여 서로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2. 자기 비움의 영성에서 주변의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자.

한국교회는 자기 비움의 영성에서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펴야 한다. 한국교회는 약자 편에 서야 하는 것이다. 강자는 항상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권리로 누리고 있다. 반면에 이 시대의 약자는 구조적으로 그 한계를 벗어날 길이 막막한 것이다. 우리가 약자를 돌본다는 것은 그들이 물질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신 성서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돈이 문제해결의 최우선과제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뛰어넘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공감의 영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들의 정신이 물질의 결핍으로 인하여 황폐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회들은 약자 편에서 섬으로써 우리는 이 땅의 약자들이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실천을 통하여 이 시대의 참된 평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한국교회에 바란다

2016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새로운 기대와 설렘 속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고 새로운 한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국내적으로 메르스 종식 후속 조처, 북한과의 효율적인 대화와 교류와 협력, 역사교과서 좌편향 문제의 슬기로운 극복, 그리고 새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법 타결, 타결된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에 따른 건설적인 일본 관계 정립 등의 과제들이 놓여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 내부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 동성애 및 성개방 풍조 등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세계적으로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의 준동, 시리아 내전, 그리고 그에 따른 천만 명의 난민들의 발생과 이들이 당하는 고통에서 보듯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세계평화의 적대세력이다. 자유세계는 이를 제거해야 한다. 한국을 둘러싼 일본의 우경화와 중국의 경제 및 군사 굴기 등 동북아의 힘의 지형도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관계 유지하면서 북한을 개방으로 끌어내어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2016년 병신년을 맞이한 우리는 한국사회가 탄탄한 신뢰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사회는 서로 나누고 돌보며 약자를 세워주고 상생공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하고 선진도덕을 세우고 생명을 존중하며 생태를 보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세계시민으로서 세계의 평화를 추구하며 경천박애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작은 천국이 되어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한국에 신뢰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두움이 깊을수록 사람들은 빛을 간절히 찾게 되듯이 이 시대의 어려움은 우리 한국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빛처럼 나타나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새로운 용기를 낼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 사실 복음자체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지 않는가? 이

3. 좌편향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긍정의 역사관을 심는 예언자적 역할을 다하자.

한국교회는 역사의 바른 위치를 찾아주는 예언자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세속화된 가치관의 범람으로 인해서 시대의 좌표를 상실하였다. 이 세대의 징표를 우리는 읽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별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과거를 비하하는 좌편향적 역사관을 버리고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을 계승하면서 미래와 역사를 긍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예언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금융자본주의와 패권주의가 판치는 정치의 한 복판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같이 사는 공동의 나눔과 이웃 배려와 사랑을 실천하며 그것을 통한 공명의 자유민주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4. 바른 성윤리 운동으로 동성애와 성매매 풍조로 부터 청소년과 가정을 지키자.

지난해 우리사회에는 서양에서 건너온 동성애 풍조를 퍼뜨리는 쿠어축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게 됨으로써 많은 기독교계를 비롯한 많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간통이라는 법이 폐기되고 성매매 합법화 요구 캠페인이 제기되면서 동방의 예의지국인 우리 사회의 성윤리가 해이하게 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성의 순결과 동성애 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사회의 윤리와 가치를 바르게 보존하는 길이다. 한국교회는 이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5. 통일의 초석으로서 ‘통일 나눔 펀드’에 전 국민 이 참여하도록 힘쓰자.

남북 분단 이후 70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3대에 이르는 왕조 세습체제로 북한사회를 거대한 수용소 군도로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유엔은 북한인권사무국을 지난해에 한국 인천에 설치하고 북한 최고 지도자를 유엔 형사재판소에 고발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을 수용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와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핵과 미사일 개발 위주의 선군정치를 포기하고 한국과의 평화로운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 통일나눔 펀드는 지난 성탄절 전야에 백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사회는 낙후된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하여 통일나눔 펀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요청된다. 한국교회가 이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 학교소식 >

1. 이번 학기에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세 사람의 원생이 논문을 통과하고 신학석사(Th.M.) 학위를 받게 되었다.
 - 이재섭(신약학),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가 초대교회와 사도행전 구조에 미친 영향 연구”
 - 이경아(신약학), “요한복음에 나타난 ‘물 이미지’ 연구”
 - 강문심(신약학), “사도행전 다메섹 사건에 나타난 회심과 소명에 관한 고찰”
2. 2015년 1월12일 평택시 청소년수련장에서 열린 본교단 소속 교회들의 중고등부 임원 수련회가 열렸고 권호덕 총장과 이세진 부총장 그리고 김대신 기획처장이 방문하여 격려했다.
3. 지난 해 12월에 본 교단 루디아 장학회가 본교를 후원하는 후원금을 본교에 전달했다. 감사를 드린다.
4. 지난 1월 4일 동천교회에서 본교단 수도권 교회들의 임직자 수련회가 열렸다.
5. 2016년 1월 18일에서 2월 5일까지 본교 대학원생들이 본교 대학특성화 프로그램에 맞추어 지도 교수와 더불어 종교개혁지역을 탐방을 한다.



지도교수: 김대진 교수(교회사)

6. 새학기부터 본 대학원에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되고 학생모집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강영숙 교수가 강의 전담교수로 수고하게 된다.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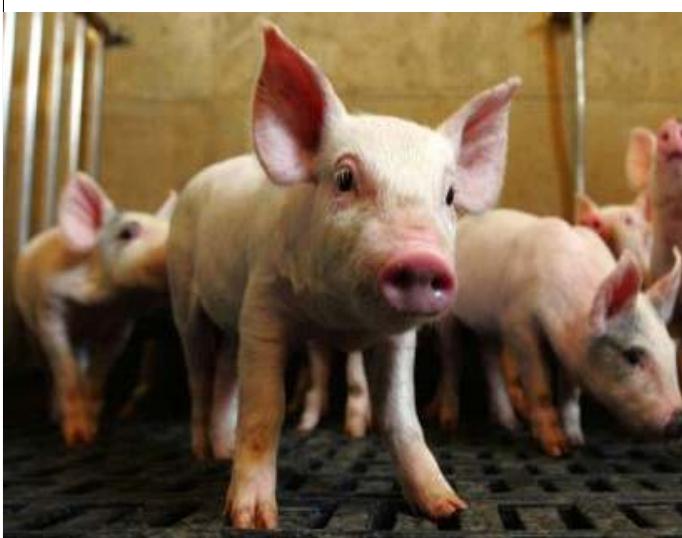
임창일 교수(구약학, Ph.D.)

1. 개요

레위기 1-7장은 제사법, 8-10장은 제사장, 11-15장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기록한다. 본장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한다. 동물, 즉 짐승, 새, 물고기, 파충류 가운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표식과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식별해준다. 본장의 강조점은 이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4-45).

2. 왜, 어떤 동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분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우상숭배에 물든 이방인과 교제를 금지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성결의 도를 가르쳐준 것은 신약의 복음을 향한 영적 준비이기도 하다(히 9:9-10).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한 것들은 우리 몸에 좋지 않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한다. 우리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여 흡이 없게 살기를 원한다.



3. 짐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3절)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 이것들은 풀만 먹는 정결한 짐승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결”을 가르치려는 의도이다.

4. 먹지 말라고 명한 네 가지 부정한 짐승은 무엇인가?(4-8절)

(1) 약대(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하다. 현재 동물학에서는 약대를 실제로 발굽이 갈라진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발자국 모양이 둥근 공 모양이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2) 사반; 시편에선 너구리로 번역한다(시 104:18). 이것은 초식동물로 바위틈에 사는 토끼의 일종이다. 토끼와 비슷하지만, 뒷발과 귀는 짧고, 꼬리가 없다. 주로 시나이 반도, 팔레스타인 북방, 사해부근의 바위틈에 서식한다. 이것도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아 부정하다.

(3) 토끼;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 부정하다. 그러나 토끼는 외견상 새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물학적으로 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끼나 사반의 구별은 해부학적으로 구별한 것이 아니고, 종교적 의미로 구별한 것이다.

(4) 돼지;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못하기에 부정하다. 돼지는 불결하고, 피부병을 옮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싫어했다.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고 미신적으로 사용했다(사 65:4).

5. 물고기 가운데 부정한 것은 무엇인가?(9-12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없으면 가증하다. 구약에는 물고기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정, 부정의 기준으로 단지 지느러미와 비늘의 여부만 기록한다. 이스라엘은 물고기를 제물로 쓰지 않았지만, 맛있는 음식으로 즐겨 먹었다. 하나님은 먹는 즐거움도 주셨다.

6. 새 가운데 부정한 것은 무엇인가?(13-19절)

부정하여 금지한 20여 종류 새들은 대부분 고기를 먹는다. 크게 넷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독수리, 솔개, 물수리, 새매 등 맹금류(猛禽類)는 부정하다. 독수리 종류를 금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잔인하거나 야만스럽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들의 먹거리인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다.

(2) 까마귀, 올빼미, 부엉이 등 고독한 새들은 부정하다. 이것들은 밝은 이미지가 없고, 주로 어둡고 한적한 곳에 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울하거나 고독한 삶을 거부해야 한다.

(3) 불결한 것을 먹는 새들은 부정하다. 황새처럼 뱀을 듣지, 벌레를 먹고 사는 새들은 부정하다. 성령을 모신 하

나님의 백성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전 3:16-17; 6:19-20).

(4) 애굽인이나 이방인이 예언할 때에 길조나 흉조로 이용하던 새들은 모두 다 부정하다.

7. 곤충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20-25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곤충은 가증하지만, 그 가운데 뛰는 다리가 있으면 먹을 수 있었다. 즉 메뚜기, 베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종류이다. 세례요한은 메뚜기를 먹었다(마 3:4).

8.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법을 요구한 까닭은 무엇인가?

외적 삶의 정결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심령의 정결에 힘쓰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민감한 삶을 통하여 영적 성결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율법조항만 지키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미 6:6-7; 속 7:1-14; 마 23:23).

9. 본장에서 부정한 것을 금지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한 까닭은?(행 11:11-16)

기도하던 베드로는 환상 중에 각색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나는 것들을 보았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금지한 것들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깨끗케 하신 것을 더 이상 부정하다고 고집할 수 없었다. 사도행전은 레위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 성결은 단순히 율법의 조항을 지키려는 굴레에 묶이지 말아야 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후 3:17).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딤전 4:4-5).

<신양시인의 수필>



비빔밥 어머니

이경아 박사(신원예닮교회)

비빔밥 어머니

비빔밥 얼굴이 보입니다.

싹둑싹둑 썰어놓은 뿌리와 줄기, 잘게 다진 육질과 꽉 짜인 기름, 참 비빔밥 얼굴이 드러납니다. 가는 곳마다 먼저 와 계신 이름들, 언제 어디서나 인심이 좋아 먹이고 쟁기는 손의 주인들.

얼큰한 것이 눈물입니다.

씹히는 것이 사연입니다. 떠난 사람 묵었던 세월의 맛과, 남은 사람 가슴 속 아쉬운 구멍, 그 속에 바람소리 돌아다닙니다. 아픈 권속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어머니... 어머니...



아련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허드렛일마다 감초처럼 끼어있는 얼굴, 큰 일 작은 일 어디나 가서 온갖 웃음일에 담그는 손과 마음, 그 손은 뭉툭한데 마음은 푸근한데, 그 발은 휘모리장단을 탑니다.

웃은일일수록, 힘든 일일수록, 어찌 그리 빠르게 달려가시는지 모릅니다.

장례식, 결혼식, 절기 행사... 각 부서와 주일학교의 여름 겨울 행사, 가정으로 병원으로 심방하는 걸음... 어딜 가든 보이는 이름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또는 찬양대원으로, 아울러 선교회원으로... 식당봉사위원과 호스피스 봉사단 그리고 전도대원 등 각양각색으로, 어디나 섞여 어우러지는 이름, 이름입니다. 뜨물처럼 구수하고 참기름처럼 고소합니다. 도라지처럼 쌈쌀하기도 합니다.

세월과 영양이 다 들어있는 비빔밥의 깊은 맛과 영양입니다.

바로 어머니 가슴입니다. 우는 이의 마음을 기도로 품으십니다. 아픈 성도의 어깨를 안고 토닥거리십니다. 가는 곳마다 이름 없이 현신된 모습, 비빔밥 어머니들이십니다.

우리교회 권사님, 집사님이십니다.

세월의 흔적이 예수님 흔적이라, 아름답고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자신들을 썰고 갈아 한 그릇 안에 버무리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더 큰 그릇

안에서 온 성도를 먹이고 품으십니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자랑스러운 비빔밥 어머니, 우리교회의 권사님 집사님이십니다. 기도의 어머니십니다. 새벽이나 깊은 밤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슴으로 부르는 이름, 이름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머니가 아프면 힘이 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교회 어머니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게 하시옵소서, 친히 그리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눈이 마주치면, 조용히 속으로 말합니다.

… 건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어머니…



로의 첫 가르침(행2:14-47)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도 성의 의미를 확인시켜준다. 예수님의 성경해석은 성경읽기로 시작된다(16).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의 가치를 소요리 문답 첫 1-3문답부터 강조한 대로 좋은 전통을 살려야 한다. 예수님 당시는 모일 때마다 구약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의 하나님 율법읽기, 특히 신명기 6장을 읽었다.

신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 성경구절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인정하셨다(마22:37-38).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매년 한번 읽되, 정해진 성경목록에 따라 율법서를 다 읽고 해석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매주 본문에 적절한 선지서를 읽었다. 예수님도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으며 기독론적으로 해석해주셨다.

눅24: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설교를 대표적인 첫 가르침으로 제시한다. 여기선 율법서의 어느 부분이 읽혀졌는지 알려주지 않고 단지 선지자 이사야 61:1-2이 읽혀졌다. 지금도 그 고정된 순서가 남아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당시 예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10이하가 51주차에 읽혀졌는데 율법서 신명기29:10이하와 함께 읽혀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인용된 것은 이사야 61:1-2절이기에 정확하게 51주차에 읽고 해석하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의 가장 정통성을 보여주는 쿰란공동체는 이사야 61장을 레위기 25장과 함께 읽으면서 종말의 하나님나라를 가르쳤다. 그렇다면 레위기 25장이 읽혀진 32주차가 가장 유력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첫 가르침을 통해 무슨 주제를 가르치셨을까? 우리는 4장 18절과 4장 43절이 “복음을 전하다”는 동사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43절에서 예수님은 그 복음 전파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로 명시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으로 정의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셨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주의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나라가 왔다는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선포하시고 그의 섬기는 종의 사명을 선언하셨습니다.

3:22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도행전 강해>(8)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경적 해석과 적용

장석조 교수(신약학, 성경적설교연구소 소장)

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다. 하나님은 말씀의 바른 전달자를 사용하셔서 바른 교회를 세워오셨다. 중세교회와 같이 추락하는 한국교회는 더 이상 숫자의 성장을 말하지 말고 그 전에 바른 설교자와 바른 신자인지에 진단받아야 한다. 바른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데서 준비되기 시작한다. 바른 해석이 되지 않으면 바르게 적용될 수 없다.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첫 가르침(눅4:16-30)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가르침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베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로 선포하셨고, 성경적 근거로 시편 2편을 인용하셨다. 요약하면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하나님나라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이다. 누가복음 4장 16~44절은 한 단위로서 “복음 전파”로 시작하고 마친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4:43). 누가복음의 전체 문맥은 그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 비전과 사명으로 마친다.

24: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24: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편협한 하나님 나라 관점을 교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1: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1: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우주적 하나님 나라 선교비전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친다.

28:3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속된 주제는 누가복음의 첫 장에서부터 담겨있다. 한국크리스천신문은 1월 첫 신문의 헤드라인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한국신약학회(회장 윤철원 교수)와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회장 김철홍 교수)가 지난 12월 19일 서초성결교회(담임 김석년 목사)에서 2015년 송년 공동학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회는 이상일 박사(총신대학교)가 ‘서다 동사류의 분사형의 한국어 번역에 대하여 (문법화 구문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배재욱 박사(영남신학대학교)가 ‘요한복음 16장 7~11절에 나타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의 사역’, 장석조 박사(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가 ‘주 예수의 탄생과 하나님의 나라(누가복음 1~2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특히 장석조 박사는 “예수의 탄생 기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려고 하는 것과 누가복음 1~2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타난 기독론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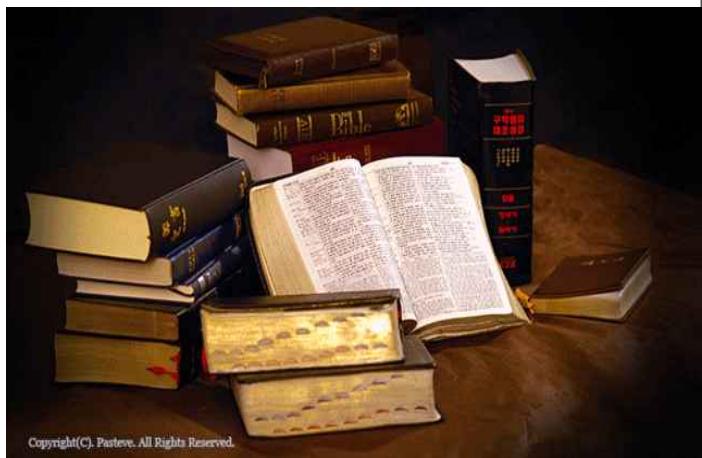
장 박사는 구조 분석에서 누가복음의 주제와 구조를 찾기 위해 발표된 많은 연구 논문들 중 최근에 발표한 탈버트(Charles H. Talbert) 논문을 소개하기도 했다. 탈버트는 누가복음의 구조를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1:5~4:15)과

공생애(4:16~24:53)로 나누었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눅 1~2장)는 공생애 이전(1:5~4:15) 단락의 첫 부분으로서 예수님이 공생애의 주제를 예고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다.

또한 기독론의 가장 친숙한 “그리스도” 칭호는 첫 두 단원에서 5회 언급되고 주로 마지막 단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며, 서론과 결론이 주제를 도입하고 명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때 “그리스도”는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연이어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는 첫 두 단락을 분석하여 기독론적 전개와 하나님 나라 주제들을 고찰하였다.

장 박사는 연구 논문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타난 기독론적 칭호들은 누가복음 전체의 구조와 주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둘째,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을 예고한다. 셋째, 우리는 주 기독론과 하나님 나라를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예고(1:5~56)와 예수님의 탄생(눅 1:57~2:52)의 구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모범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 본문에서 주제를 찾고, 잘 배열할 수 있다. 말씀의 전달은 단지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을 담은 설교문에 그치지 않는다. 의사소통의 통계적 분석에 의하면, 사람을 만나는 첫 인상은 전달자의 목소리 톤의 영향이 38%, 표정 35%, 태도 20%, 언어 7%로 만들어진다. 자신에게 적절한 목소리와 표정과 태도로 스타일을 결정해야 하고 완전히 암기하고 전달해야 한다. 말씀의 전달자가 아무리 정확한 언어로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을 가르친다해도 목소리와 표정과 태도의 장애물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해도 설교자는 전달할 메시지의 핵심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하나님은 누구신가?

(11) 삼위일체론 강의(4)

이동영 교수(Dr. theolog. 조직신학)

유신론의 영향 때문에, 유일신론적 관점에서 삼위일체교리를 이해하려는 잘못된 시도들이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삼위일체교리에 대한 두 개의 잘못된 사상이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삼위일체교리에 대한 양대 이단이라고 부른다: 1) 역동적 전제군주론 (종속론)과 2) 양태론적 전제군주론 (양태론)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삼위일체교리의 예비

신약성경은 삼위일체교리에 대한 어떠한 명시적 진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안에는 세 개의 이름, 즉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호가 예전적인 어법과 더불어 송영적, 축도적으로 등장 합니다(고전 12, 4ff; 고후 13, 13; 앱 4, 4ff). 세분의 성호는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세례명령 안에서 나타납니다(마태 28, 19).. 이러한 성경구절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즉 정형화된 삼위일체교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세례시에 그리고 예배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송영의 형식으로 경배되었다는 것입니다. 후대의 삼위일체교리가 대단히 사변적으로 전개된 반면에, 성경적인 증언 안에서 세분의 이름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예배 안에서 신앙과 기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성부께 기도가 받쳐졌고, 예수님 자신이 주님으로 불려 졌으며, 성만찬에서 성령임재의 기원과 더불어 성령이 불려 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교리는 신학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머리를 굴려서 형성된 사변 신학이 아니라 공동체 예배 속에 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예배의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의 예배적 실천이 없는 한, 우리가 아무리 이 교리를 탁월하게 해설한다 할지라도 별반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적 유신론과 성경적 신관의 결합 그리고 잘못된 신론들의 발생

고대교회는 삼위일체교리와 더불어 깊은 숙고를 요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위일체론적 신론은 교회가 뿌리내리고 성장했던 정신사적, 종교사적 환경과의 만남 속에서 정립된 것입니다. 그 곳에는 신들 뿐만 아니라 신성과 세계를 중재하는 유사적인 중간존재에 대한 종교적인 제의(Kult)가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른 신론적 신화에 대항하는 하나의 철학적 유일신론(단일신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들은 헬라의 철학적 유일신론 안에서 구약성경적인 유일신신앙과의 유사점을 발견했고, 그 때문에 그들은 헬라의 철학적 유신론을 구약성경의 신론과 결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 삼위일체신앙이 초대교회의 구원경험으로부터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적 유일신사상과 그것과 결탁한 헬라적

1) 역동적 전제군주론(Der dynamische Monarchismus) 내지는 종속론(Der Subordinationismus):

사모사타의 바울(Paulus von Samosata), 로마의 테오도토스(Theodotus von Rom), 루치안(Lucian), 아리우스(Arius) und 마케도니우스주의자들(Makedonier) 등이 역동적 전제군주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역동적 전제군주론 내지는 종속론에 따르면 원래적 의미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은 아버지, 곧 성부입니다. 오직 성부만이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ψυλος ανθρωπος:)에 불과하며(Phisilanthropophismus),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능력(δυναμις)에 불과합니다. 역동적 단일군주론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례 시에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을 뿐입니다(Vgl. Adolf von Harnack, DG, 159). 그러므로 역동적 전제군주론에 따르면 하나님과 예수의 통일성은 의지와 사랑의 통일성이지 본성과 실체의 통일성이 아닙니다. 역동적 전제군주론은 종속론이라고 명명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아버지에 대한 아들과 성령의 종속성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역동적 전제군주론은 기독론적으로는 양자 기독론 내지는 영 기독론 이라 명명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세례 시에 성령의 능력에 의거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입양 내지는 승격(προκοπη)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2) 양태론적 전제군주론(Der modalistische Monarchismus) 내지는 양태론(Der Modalismus): 노에투스(Noetus), 프락세아스(Praxeas), 사벨리우스(Sabellius) 그리고 앙키라의 마르첼루스(Marcellus von Ankyra) 등이 양태론적 전제군주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양태론적 전제군주론에 따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 시대에 있어서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구별되는 드러남의 방식들 내지는 나타남의 방식들(Erscheinungsweise), 즉 모드스(modus)에 불과합니다. 양태론적 전제군주론은 일명 양태론이라고 명명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하나님이 여러 개의 양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양태론적 전제군주론은 또한 성부수난설(Patristicismus)라고 명명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고

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Alfred Adam, Lehrbuch der Dogmengeschichte, I, 170; R. Seeberg, Grundriß der Dogmengeschichte, 33). 그리고 양태론적 전제군주론은 또한 사벨리우스주의(Sabellianismus)라고 명명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로마에서 215년 이래로 사벨리우스(Sabellius)에 의해서 주장되었기 때문입니다(A. Adam, 같은 책, 169). 이 교리는 하나님의 통일성 내지는 단일성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한동안 삼위일체 문제의 해결책으로 고대 교회에 통용되었으며 정통교회 속에서 많은 지지자들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분의 이름들이 단지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의 나타남의 방식에 불과한 것인가요?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세분의 이름이 나란히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들과 더불어 아버지가 현존하며, 현존하는 아버지와 현존하는 아들과 더불어 성령이 결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지 “한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결국 양태론적 전제군주론은 공교회 속에서 배척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역동적 전제군주론과 양태론적 전제군주론의 공통점

양태론적 전제군주론, 즉 양태론은 서방에서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역동적 전제군주론, 즉 종속론은 동방에서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위일체론에 대한 대표적인 이단사상이지요. 그러나 역동적 전제군주론과 양태론적 전제군주론은 열핏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전혀 다른 신학적 사유방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배후에는 동일한 열정, 즉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 즉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일신론적 열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양자는 모두 삼위일체의 형식을 빌려서 해석된 일신론이었던 것이지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지상(紙上)설교>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창 1:1-5



김준범 목사

(양의문교회 담임, 고려개혁신학연구원,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신학 교수)

총 129문답으로 이루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문답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제26문은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문답입니다. 제26문은 보편적이고 의

심할 여지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의 열 두 조항들 중 제일 첫 번째 조항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신앙고백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 신앙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제26문의 답은 수많은 개혁주의 신앙고백들과 요리문답들 중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문답입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 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써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며, 이 눈물을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아무 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행 14:15).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무대가 되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무 것도 올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참된 진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결국 사람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바른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한 사도신경의 첫 번째 조항은 우리의 믿음의 조항들 중 제일 처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평계치 못할지니라”(롬 1:20)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

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시 8:1,3)라고 하셨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 19:1)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수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참으로 기이하게 창조하셨습니다(시 139:13-16 참조). 인간은 다 하나님에 특별하게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2013에 미국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70억 9천만여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엄청난 다양성을 가졌으면서도, 인간의 공통된 본성을 다 동일하게 가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걸작품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라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피조세계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무 것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믿습니까? 이 세계의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이라고 믿겠습니까? 인간이 무엇인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찮은 것입니까? 인간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요, 우리는 삶의 아무런 목적도 없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가 아닌 이를 신으로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자칭 신은 참 하나님아닙니다. 창조자가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의 아닙니다. 예레미야 10:11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칭 신이라 하지만, 천지를 짓지 아니한 자칭 신들은 이 세계가 자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 권리가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 자칭 신이라 하는 자들은 사실은 신이 아닙니다. 그속에는 생기도 없습니다(렘 10:14).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죽은 신이라고 하였고 목석과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신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함께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뜻이나 목적 없이 이

광대한 우주와 걸작품인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 48:11)고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써 창조하신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자녀인 우리 각 사람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이 광야와 같고 눈물 골짜기 같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모든 시련과 역경과 손실과 고난과 슬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는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요 대주재(大主宰)이기 때문에 능히 그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신앙, 구원의 신앙은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신앙입니다. 범사에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엎드리는 신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전 12:1)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를 의뢰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잠 3:6).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약주석>



골로새서 해석(2)

최흥식 교수(Ph.D., 신약학)

(횃불신학대학원대학교, 재건 측)

골로새서 1:9-20

본문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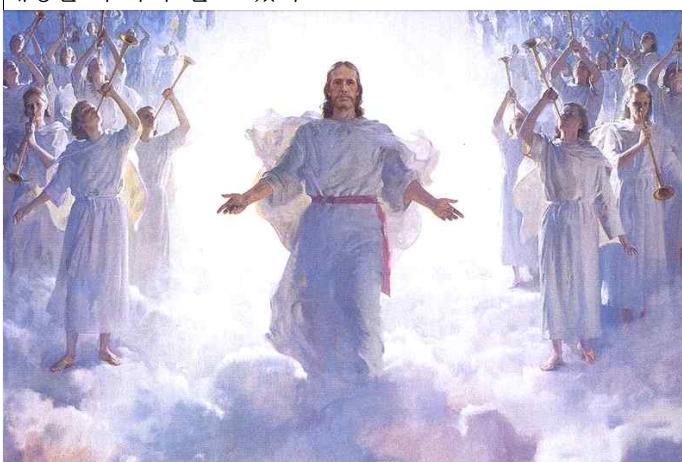
개요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단락인 9-14절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를 담고 있다. 둘째 단락인 15-20절은 그리스도를 위한 찬양이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9-14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 그는 에바브로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의 위기상황을 전해 듣고서 골로새 교회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지기를 간구한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주께 합당히 행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인내와 감사의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즉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목적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의 목적은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도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롬 15:1-3)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롬 8:8; 고전 7:32; 갈 1:1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선한 삶의 결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영적인 성숙을 통해 가능하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 목적은 환난을 인내하고 성도의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이다. 성도는 더 이상 악의 영역에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기어 졌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리스도를 찬양(15-20절)

본 구절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에 대한 찬양시로서 그리스도의 수월성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고후 4:4, 6 참조)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신다. 또한 그분은 창조물 보다 선재하며 창조물 위에 군림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을 포함하는 모든 물적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 그분은 우주를 관장하시는 분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보증이시다(고전 15:20, 23 참조). 그분은 창조와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지고하신 분이시다. 예수 안에 신성의 충만이 거함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화해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근본이시며 교회의 근본이시다.

절별(節別) 주제

9절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단적 가르침과 교회의 상황을 전해들은 후에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적 가르침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임이 암시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인간역사와 만물을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인생의 기쁨과 목적임을 바울은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마 7:21; 막 3:35; 행 2:14; 앱 5:17; 6:6; 살전 4:3 참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의 원천은 성령께서 제공하는 지혜와 총명이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유대교나 율법보다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가장 확실한 근거임을 가르친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롬 8:4; 갈 5:16, 18, 25). 구약에 의하면 지혜는 율법과(신 4:6; 대상 22:12) 하나님의 영을(출 31:3; 35:31; 사 11:2) 통하여 주어진다. 바울은 구약의 가르침과 약간 달리 율법 보다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전 2:12-16).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성령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10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됨의 목적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 위함이다. “행한다”는 원래 “걷는다”이며 삶의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이것은 구약과(출 18:20; 신 13:4-5; 시 86:11; 잠 28:18; 사 33:15) 바울서신에서도(롬 6:4; 8:4; 13:13; 고전 7:17;

고후 5:7; 갈 5:16) 발견된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을 지칭한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와(고전 7:32; 고후 5:9) 주 하나님(롬 8:8; 갈 1:10; 살전 2:4, 15; 4:1) 두 분 다 성도가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할 대상이지만 여기서는 주 하나님인 그 대상이다. 주께 합당히 살아야하는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주께 합당히 사는 삶은 도덕적 성숙에 의해 나타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모든 선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함의 결과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적 성숙이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며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 신행일치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는 신자의 삶이 강조되어 있다.

11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주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선한 행위의 열매와 영적 성숙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롬 1:20; 고전 1:18, 24; 고후 13:4; 앱 1:19; 3:7). 하나님의 “영광의 힘”은 하나님의 영광된 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런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신성과 능력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어떤 환난도 기쁨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다.

12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성도들의 기업의 분깃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기도한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의 땅(민 18:20; 26:52-56; 수 14:3-4) 또는 하나님 자신(신 10:9), 또는 하늘에서 누릴 영생을(단 12:13) 일컫는 말이다. 본문에서는 하늘나라에서 성도가 누릴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신자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소유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도록 역사하셨다. 특히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 “빛”은 하늘나라의 빛을 의미한다. 부사구 “빛 가운데서”는 기업을 얻는 영역 또는 성도가 존재하는 영역을 묘사할 수 있는데 전자가 더 타당하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심으로써 그들은 빛의 자녀들로 불려진다(눅 16:8; 요 12:36; 살전 5:15). 신자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한다.

13절: 이 구절은 흑암의 권세에서 성도들을 건져내시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한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며 구출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다.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포함하는 성도들을 의미한다. “흑암”은 악을 상징하며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를 묘사하기도 한다(롬 1:21). 흑암과 빛이 종말론적 존재 영역으로 대조되어 있다.

성도들은 어두움이 아니라 빛 안에 존재하며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출해 내셨듯이(출 6:6; 신 13:5) 성도들을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출해 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친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는(고전 15:24-25; 앱 5:5)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한다.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구분되기는 하지만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역사되는 그분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성도의 존재 영역의 전환 역사를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종말론적 현실은 성도들의 영적 체험을 통해 실현되었지만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루어진다(계속).

<이사야서 강해(3)>



“이사야의 소명”(6장)

임용섭 교수(구약학, Ph.D.)

개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을 다루고 있다. 왜 소명 기사가 첫 부분에 오지 않고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가? 1~5장에서 하나님은 마치 법정에서 심문하고 형벌의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돌보듯(1:2), 혹은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듯(5:1~2)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셨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5:24).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죄에 대해 진노의 심판을 작성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 구원하기 원하신다(1:25~27, 4:4). 그래서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를 그 백성 가운데 보내신다. 7~12장은 소명을 받은 이사야가 유다 왕 아하스 시대의 역사적 현장에서 예언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6장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뉜다. 1~4절은 신현 곧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천상의 보좌에 계신 거룩하신 왕을 보는 것이다. 5~7절은 부정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

는 사죄의 역사로서 이는 선지 사역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8~13절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사역을 맡겨 파송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1. 신현(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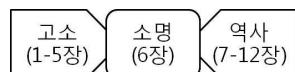
“웃시야 왕이 죽던 해”(주전 740)에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았다. 웃시야는 치세 때 영토가 회복되고 나라는 풍요로웠으며 정치적으로는 오랫동안 한 왕이 다스리는 안정을 누렸다. 다만 말년에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문둥병에 걸려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하나님의 보좌를 성경의 표현대로 묘사한 것임 그러나 완전한 모습은 아님

이런 때에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었다. 영웅적인 왕의 죽음은 나라의 위기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이사야는 참 왕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다. 스랍들은 마치 왕을 호위하는 시종들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서있으며,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 곧 그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선포한다. 땅의 요동과 가득한 연기는 하나님의 현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가시적인 현상이다.

2. 사죄(6:5~7)



[이사야 6장의 문맥]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은 지극히 완전하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앞에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백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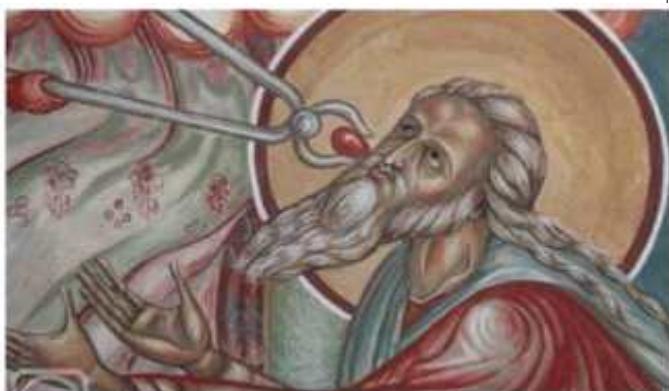
부정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므로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탄식한다. 7절에서 악의 제거와 죄의 용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술의 부정은 단지 제의적인 의미에서 부정이 아니다. 그들은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했다(3:8).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하

나님의 말씀을 멀시하고 불순종하였고 그래서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없는 부정한 나라가 되었다. 선지자의 부정함은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숫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고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면서 해결된다. 이와 같은 정화 혹은 죄 사함의 과정에서 입술이 강조되는 것은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3. 파송(6:8~13)

죄 사함 받은 이사야에게 드디어 소명이 주어진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며 보낼 자를 찾으실 때 선지자는 즉시 응답하며 자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받은 사명이 뜻밖에도 백성이 깨닫지 못하리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것이었다.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가? 이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데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다(29:9~14). 더욱 이상한 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를 원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단지 피상적인 회개를 바라지 않으신 것이다(참고 호 5:14~6:4).

선지자는 언제까지 그런 부정적인 사역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11절 상).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 백성을 그대로 심판 가운데 두실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멀리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지속될 것이다(11하~12절).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에도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결국 철저한 심판을 통해 악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심으로써 그 땅을 정화시키시는 것이다.



천사가 제단 숫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댐



4. 영적 전쟁의 약점(弱點)(5)

배춘섭 교수(선교학)

지금까지 SLSW의 장점은 많은 지지자들과 옹호자들을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LSW은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SLSW은 어떤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상황중심의 본문해석

성경해석학에서 성경본문은 보편적 타당성을 입증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성경본문은 다른 상황 속에 처한 독자들에 의해 다양한 성경해석의 방법에 의해 그 의미를 달리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¹⁾ 저스틴 유풍(Justin S. Ukpong)은 자문화적 성경해석학(inculturation biblical hermeneutic)을 정의하면서, 의식적으로 성경 해석자가 분명한 의도를 지니고 성경본문을 자민족의 사회문화적 관점으로부터 해석하는 접근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문화적이고 상황중심의 본문해석은 성경해석학에서 매우 중대한 오류로 논의된다.²⁾

무엇보다도 SLSW의 가장 큰 약점은 성경이 SLSW의 방법의 정당성과 정확성을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SLSW의 성경해석학이 성경의 역사적 본문보다 문화적 상황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주장은 SLSW 일부 신학자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더욱 지지를 받는다. 예를 들어, 다니엘 10:13~20은 “지역귀신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SLSW의 신학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대표적인 성경본문이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단10:13-14 개역개정)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단10:20 개역개정)

이상의 본문은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기도를 드릴 때에 천사가 현현하여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한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바사 왕국

1) Bernard C. Lategan, “Scholar and Ordinary Reader: More Than A Simple Interface,” *Semeia* 73 (1996): 254.

2) Justin S. Ukpong, “The Parable of the Shrewd Manager (Luke 16:1-13): An Essay in Inculcation Biblical Hermeneutic,” *Semeia* 73 (1996): 190.

의 군주(שָׁרֵךְ תְּהִלָּתֶךְ)가 과연 지역귀신을 의미하는 것인가의 질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천사가 21일간 바사 왕국의 군주, 즉 페르시아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들로 인해 천사의 말이 묶였다고 주장한다.³⁾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유대에서 성전건축을 방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가정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부인하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지닌 권한은 바사 왕국의 군주(שָׁרֵךְ)에 저지를 당했으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은 지역신 개념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존 칼빈(J. Calvin)은 실제 군주(שָׁרֵךְ)가 뜻하는 바가 역사적 실제성을 띤 고레스 왕의 아들 ‘캄비세스’라고 주장한다.⁴⁾ 팀 메도우크라프트(Tim Meadowcroft)도 군주(שָׁרֵךְ)를 언급하면서 “이 용어는 페르시아의 왕과 헬라의 왕이 실제 인간이었다는 가정을 분명히 지적한다. 반면 미가엘은 초월적인 존재(Non-earthly Being)이다”라고 주장한다.⁵⁾ 이런 점에서 다니엘 10장 13절의 바사 왕국의 군주(שָׁרֵךְ)와 20절의 헬라의 군주(שָׁרֵךְ)는 영적인 존재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⁶⁾ 오히려 군주(שָׁרֵךְ)는 사마리아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유대인의 성전건축을 방해했던 그 당시의 실제 인간이었던 군왕 캄비세스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다니엘 10장은 천사와 지역귀신들 사이의 영적 전쟁이라는 주장을 전혀 뒷받침 하지 못한다. 당연히 영적 전쟁을 위해 당위적으로 ‘영적 도해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니엘 10장을 언급하며 SLSW을 주장하는 성경해석은 통시적 접근(diachronic approach)의 주석방법이 배제된 해석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⁷⁾ 오히려 SLSW의 주석방법은 공시적 접근(synchronic approach)만의 미흡한 주석방법을 취합하고, 동시에 독자가 의도하는 대로 미리 자의적 해석을 전제로 하는 독자 중심적 방법론의 오류로 평가할 수 있겠다.

3) Peter Wagner, *Confronting the Powers*, 91; Gary Kinnaman, *Overcoming the Domination of Darkness* (Grand Rapids: Chosen Books, 1990), 54; Timothy Warner, “Dealing with Territorial Spirits,” in *Engaging the Enemy*. (Ventura, CA: Regal, 1991), 52.

4) J. Calvin, *A Commentary on Daniel* vol 2, trans. T. Myers (London: Banner of Truth, 1966), 252.

5) Tim Meadowcroft, “Who are the Princes of Persia and Greece (Daniel 10)? Pointers Towards the Danielle Vision of Earth and Heave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9/1(2004): 102.

6) 셉트와진트(LXX)는 페르시아와 헬라의 군장(שָׁרֵךְ)을 ‘στρατηγός’로 번역한 반면, 미가엘을 뜻하는 군장(שָׁרֵךְ)은 ‘ἀρχων’으로 번역했다. 다시 말해, LXX에서는 마소라텍스트(MT)의 군장(שָׁרֵךְ)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의도적으로 신학적 해석을 첨가했다. 여기서 ‘στρατηγός’는 성경에서 주로 인물을 묘사하거나 상징하는데 쓰였고, ‘ἀρχων’은 대개 영적이며 초월적인 존재를 드러내는데 사용되었다.

7) Robert. A. Guelich, “Spiritual Warfare: Jesus, Paul, and Peretti,” *PNEUMA* 13/1 (1991): 63.

2016년도 신·편입생 모집(일반전형)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과 “철저한
성경언어교육에 기초한 주석-설교 훈련”을
바탕으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바른
신학교육의 산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모집 내용(신입, 편입) - “사회복지학 신설”

과정		인원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박사과정 (Ph.D.)	-신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0 명	 <p>1. 원서교부 및 접수 1월 4일(월)~2월 2일(화)</p>
신학석사과정 (Th.M.)	구약학, 신약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선교학	00 명	<p>2. 전형일시 2월 4일(목) 오전 10시</p>
목회학석사과정 (M. Div.) 목회학연구과정 (M. Div. eq.)	목회자 양성 과정임	00 명	<p>3. 전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Th. M./ M. Div./ M.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전형(1차) - 면접(2차) ② Ph.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전형(1차) - 영어 및 전공시험(2차) - 면접(3차) <p>※ 성경학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다음 '성경의 문학', '성경의 보건학', '성경의 경영학' 등을 연구하는 과목임.</p>
석사과정 (M.A.)	-성경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00 명	<p>4. 평생교육원의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독교상담연구반은 매 학기마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평신도 조직신학교사반은 구역장 교육에 매우 좋음 -목회자 주석-설교반은 설교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됨
평생교육원	-기독교 상담연구반 - 조직신학 교사반 -목회자 주석-설교반	00 명	

2 특징:

- ① 성경언어 강화를 통한 성경 주석 특성화

- ② 직장인을 위한 수업 운영
- ③ 지방학생 기숙사 제공
- ④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7분 거리
- ⑤ 다양한 장학 제도(성적, 복지, 단독목회, 원우가족, 근로, 특별 등)
- ⑥ 타 교단 학생으로 본 교단에서 목회를 원할 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회할 수 있도록 함

- 3.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sb.ac.kr